



시중유통 오리고기 안전 이상무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고병원성, 그러니까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리와 닭고기 업계가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설대목을 앞두고 AI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가장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리고기는 다행히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오리고기를 뜨거운 증기로 익히는 훈제가공기가 텅 비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설 선물세트를 대느라 설새없이 돌아갔지만 AI발생이후 주문이 뚝 떨어지자 아예 가동을 멈춘 겁니다. 그나마 가동 중인 라인도 작업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최인호(오리고기 가공업체 대표) 매출은 작년 설 대비 70%정도 줄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나가야 할 선 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는 이상이 없는 오리까지 매몰처분이 이루어져 시중유통이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 시중에 팔리는 가공육은 모두 열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리고기 소비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설 전 주말이면 천여 건씩 밀려들던 오리고기 선물세트 인터넷 주문은 50건이 채 안되고 그나마 들어온 주문도 취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강현(한국오리협회 전무) AI에 감염된 오리는 절대로 시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오리고기를 많이 소비해주시는 것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오리 농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기자] 여기에 걸려 있는 오리와 닭고기들은 섭씨 80도 이상에서 50분동안 익혀진 것들입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오리와 닭의 매출이 주말 사이 10%이상 줄어든 상황.



AI극복을 위해서는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